

노동정책연구  
2023. 제23권 제2호 pp.199~206  
한국노동연구원

서 평

## 글로벌 가치사슬은 소득격차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저, 엄창호 역,  
세종연구원, 2019)

김혜원\*

유럽에서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흥은 전통사회를 근대사회로 바꾼 역사적 계기로 오랫동안 주목받아왔다.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은 지대한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로 산업혁명 이후 최초로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전에도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은 늘 있었지만, 인구증가가 뒤따르면서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최저수준을 벗어나 현재와 같은 경이로운 소비수준을 최소한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단절은 동양과 서양의 격차가 역전된 것이다. 앵거스 매디슨의 추정에 따르면 1500년 무렵 인도와 중국, 서아시아 및 기타 아시아의 비중이 인구나 소득 면에서 서유럽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9세기 초반까지 아시아의 지배적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Frank, 2003). 하지만 그 이후 2백년 동안 아시아의 지위는 급속히 하락하였다. 역사학자들은 19세기의 역전 현상을 대분기(great divergence)로 명명했다(Pomeranz, 2016).

제국주의 국가 간의 쟁탈전과 1차 세계대전, 대공황과 관세전쟁, 2차 세계대

\* 한국고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경제학 박사(hwkim@knuc.ac.kr)

전과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석유 위기와 서유럽 경제의 침체 등 20세기에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서유럽과 아시아 또는 북과 남의 경제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우리는 기존의 북남 격차 확대와 대조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기 동안 저소득국가로 간주되던 중국이 21세기에는 미·중 양강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국제무역기구 형성을 주도하고 자유무역체제를 이끌어 온 미국은 21세기에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운동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과거의 수입대체공업화 노선 대신 친세계화 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2016년 발간된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책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에서 제시된 꼬끼리 곡선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100분위로 나누고 1988년부터 2011년 사이 소득증가율을 분위별로 그려보면 긴 코를 치켜세운 꼬끼리 모양이 된다. 즉, 1998년 소득분위 50% 주변의 소득층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1998년 80~90%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고 95% 이상의 최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간층의 빠른 소득 증가는 중국을 위시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멕시코, 베네수엘라, 터키, 호주, 그리고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의한 것이다. 이에 비해 80~90% 구간의 소득 정체와 95% 이상에의 빠른 소득 증가는 선진국 내에서의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 1990년을 기점으로 G7 국가의 세계시장 수익 점유율과 제조업 매출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앞서 언급한 일부 국가에서 1인당 국민소득, 제조업 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제대학원 국제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리처드 볼드윈은 19세기 대분기 이후 북남의 소득격차 확대가 20세기 후반부터 역전되어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대수렴(*great convergence*)이라 명명하였고 2016년에 동명의 책을 발간하였다. 볼드윈은 이 책에서 대분기 이후 북남의 격차가 왜 확대되었으며, 1990년을 전후로 하여 왜 북남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볼드윈의 책은 다섯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세계화 20만 년의 역

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인류사 전체를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4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세계화를 가로막는 3개의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증기혁명 이후 어떻게 이 제약조건들이 하나씩 완화되면서 세계화가 진척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대수렵 과정에서 완화된 제약조건이 야기한 변화 양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제3부는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제경제학의 주류 이론인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가진 결함과, 산업혁명 이후 북남의 격차 증대를 설명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북남의 격차 증대와 1990년대 이후 격차 감소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제4부는 대수렵 시대에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5부에서는 미래의 세계화를 전망하고 있다.

볼드윈에 따르면 세계화는 지역 간에 상품과 지식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 실체의 이동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세계화를 제약하는 조건은 상품의 이동을 제약하는 조건, 지식과 정보의 이동을 제약하는 조건 그리고 사람의 이동을 제약하는 조건 세 가지이다. 과거 상품, 지식은 모두 사람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동 수단이 발달하기 전 세계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생산과 소비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문명은 생산-소비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본격적인 세계화의 서막을 연 것은 증기력을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에 적용시킨 증기선과 증기기관차의 등장이다. 이어진 기술혁신은 상품의 운송비용을 대폭 감소시켰다. 증기선과 증기기관차가 등장하기 이전 국제무역은 높은 운송비용 탓에 고가의 물품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나 운송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중저가 제품의 대량무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리적인 운송비용만이 아니라 관세율의 점진적인 하락도 무역비용을 낮추었고 이로 인해 오래된 생산과 소비의 결합을 분리시켰다.

볼드윈은 무역비용의 하락을 통한 상품무역의 확대를 오래된 세계화(old globalization)로 명명하였는데 책에서 1차 세계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새로운 세계화(new globalization) 또는 2차 세계화는 글로벌 기업이 생산공정을 분해하고 중간재 생산을 국제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최종 판매 제품의 적정 품질과 적정 비용을 모두 달성하는 활동이 전면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볼드윈은 또한 국제적 생산의 조직화, 즉 최근에 많이 쓰이는 용어로

말하자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정보비용과 통신비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최종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해해서 보면 최종적으로 과업(task) 단위로 쪼개진다. 과업을 조합한 것이 개인의 직무(job)이고 개인의 직무가 더 큰 단위로 종합되면 단계 또는 모듈이 될 것이고 단계나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생산물이 만들어진다. 과업, 직무, 모듈이 전문화될수록 해당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세분된 것들 사이가 조정되지 않으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 전문화가 너무 진척되면 전문화된 직무나 과업을 조정하는 데 비용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Becker and Murphy, 1992). 조정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모든 과업과 직무, 생산단계를 외주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조정비용 때문에 기업 내부나 공간적으로 통제가능한 영역 내에서 함께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면 조정비용이 하락한다면 기업 외부에서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일본의 스미토모 전기공업은 일본 최대의 전선, 케이블, 광섬유 공급업체이다. 스미토모는 1996년 와이어 하니스 생산부문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와이어 하니스는 자동차나 항공기 등의 내부 배선용 전선을 묶은 다발이다. 와이어 하니스 생산 모듈은 최종 제품인 자동차나 항공기 생산의 다른 모듈과 정합적이어야 하고 보조를 맞추어 개발되고 품질 수준을 맞추어야 하므로 과거에는 일본 내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의 생산공정 정보와 품질 정보가 신속하게 일본 본사와 공유됨에 따라 와이어 하니스 단계가 전체 모듈들과 함께 완벽하게 작동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단계의 해외 배치가 가능해졌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정보 수집비용이 대폭 절감되었고 정보 계산비용과 저장비용이 낮아졌으며 중앙과 지역 사이의 의사소통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정보통신혁명 중에서 통신기술은 지식, 교육, 정보의 전달을 쉽게 하고 비용을 낮춘다. 통신기술은 조정비용을 낮추는데 조정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전문화가 촉진되고 생산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쉬워진다(Bloom et al., 2009). 이로 인해 가치사슬이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생산단계의 해외 이전이

쉬워지고 부품과 중간재의 교역도 늘어난다.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은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운송비용의 하락은 상품 이동 제약을 완화하여 세계화의 첫 물결을 불러왔고 정보통신혁명은 지식과 정보의 이동 제약을 완화하여 두 번째 세계화의 물결인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화의 첫 물결 시기에 북남의 격차는 확대되었고 두 번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북남의 격차는 - 일부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되긴 하지만 - 줄어들고 있다. 볼드윈은 운송비용의 하락과 북남의 소득격차 확대, 통신기술의 발전과 북남의 소득격차 감소를 하나의 이론 내에서 설명하는 것에 도전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의 이익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에서 향유되며 무역은 모든 교역국의 소득증가를 낳는다. 이러한 이론은 19세기의 영국과 20세기 후반의 미국이 자유무역체제 형성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격차는 증가했다. 많은 서구 주류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아닌 남의 제도적 실패, 정부 실패, 경제발전의 실패로부터 북남의 소득격차 확대를 설명하고자 했던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무역 그 자체에 착취적 성격이 있다는 종속이론을 주창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도구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이 북남의 소득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Krugman and Venables, 1995). 독점적 경쟁이론과 경제지리학 그리고 국제무역이론을 결합하여 ‘신고전파 종속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크루그먼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파라미터는 운송비용과 관세비용 등의 무역비용이다. 두 나라 간에 무역비용이 매우 높다면 무역은 불가능하고 두 나라는 자급자족경제를 유지할 것이다. 정반대로 운송비용이 0이라면 자급자족에서 교역 상태로 이행하면서 두 나라의 소득은 공히 높아지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국제무역론의 가정이다.

하지만 현실의 무역비용은 엄연히 존재한다. 크루그먼은 무역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동일한 산업 구성에서 출발한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제조업에 특화하고, 다른 나라는 농업에 특화하는 산업 구성의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Krugman, 2017). 농업에 특화한 나라는 자급자족 상태보다 소득이 낮

아지게 되며 운송비용이 하락할수록 두 나라의 소득격차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신고전과 국제무역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대분기에 따른 북남의 소득격차 확대가 무역비용과 지리적 시각을 고려할 때 해명된다.

볼드윈은 크루그먼의 모형이 무역비용의 감소에 의한 북남의 소득격차 확대는 잘 설명하지만 1990년 전후부터 시작된 대수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보통신혁명과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이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률과 함께 나타난 점이 크루그먼의 모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볼드윈은 크루그먼의 이론에 내생적 성장이론과 국제적 지식 파급을 함께 고려하였다 (Baldwin and Forslid, 2000). 지식이 한 나라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무상으로 다른 나라에도 이전되면 지식을 이전받은 나라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무역비용이 불변인 상태에서 지식의 파급효과가 커지면 북에는 제조업이 남에는 농업이 특화되어 양극화된 상태에서 남에도 제조업이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수렴하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볼드윈은 지난 2백 년의 역사를 이상의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지식의 파급은 미미한데 무역비용이 줄어들면서 크루그먼이 설명한 북남의 산업 분화와 소득격차 확대가 나타났다. 20세기 후반 정보통신혁명과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으로 지식의 파급효과가 강화되면서 남에서도 제조업이 발전하고 소득격차는 축소되었다.

이상에서 필자는 볼드윈의 책 제2부와 제3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화의 주요 양상과 국제적 소득격차의 향방을 설명하는 이론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이 글에서 소개하지 않은 제4부와 제5부에서 볼드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논의하고 미래의 세계화는 오늘의 세계화와 어떤 점에서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인지 논리적 추론과 과감한 상상력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요약하지 않지만 정책에 관심 있는 이들은 제4, 5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이 가진 장점도 많지만 한계도 있다. 볼드윈은 제2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보다는 글로벌 기업과 도시(지역)가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된 2016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미·중 진영 사이에 양분되고 지식의 이동 및 글로벌 기업 간 연결이 미·중

경쟁으로 분절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있다. 이 책에는 (패권)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실증적 분석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볼드윈의 책은 세계화 현상의 구조와 변동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책이지만, 개별국가에 대한 설명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정된 지면의 탓도 있겠지만 특정 세계화 환경에서 개별 국가가 경험한 추격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동차산업의 성공 등을 사례로 들어 한국이 마지막으로 ‘북’에 합류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제1의 세계화 시대에 개발도상국이 추격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비어있어 한국의 성공을 이론 내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2의 세계화 시대에 중국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 국가인 데 반해 베트남이나 태국 등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볼드윈은 제2의 세계화 시대 가치사슬의 국제화가 지리적 집중의 양상을 보여 가치사슬에 합류하지 못하는 국가의 불행은 부각하지만, 가치사슬에 합류한 나라들 사이의 성과 차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권의 책에서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도 없고 다룰 필요도 없다. 이 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였던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 그리고 최근 5년 사이 한국 경제를 뒤흔든 ‘글로벌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향배와 국제 무역분쟁의 미래가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 세계 경제 현상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부, 기업가, 근로자, 시민 그리고 노동 연구자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Baldwin, R. and R. Forsid(2000). “The Core-Periphery Model and Endogenous Growth: Stabilizing and Destabilizing Integration”. *Economica* 67 (267):

307~324.

Becker, G. S and K. Murphy(1992). “The Division of Labor, Coordination Costs, and Knowledg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4) : 1137~1160.

Bloom, N., L. Garicano, R. Sadun, and J. Van Reenen(2009). “The Distinct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Firm Organization”. NBER Working Paper 14975.

Frank, A. G.(2003). 『리오리엔트』. (이희재 역). 이산.

Krugman, P.(2017). 『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 (이윤 역). 창해.

Krugman, P. and A. J. Venables.(1995). “Globalization and the Inequality of Nat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4) : 857~880.

Milanovic, B.(2017).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서정아 역). 21세기북스.

Pomeranz, K.(2016). 『대분기-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 (김규태 외 역). 에코리브르.